

세계에너지총회 대구에서 개최

<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(World Energy Congress 2013)>가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코(Exco)에서 열린다.

에너지총회는 1924년 이후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로 2013년의 주제는 <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(Securing Tomorrow's Energy Today)>이다.

세계 100개국의 관련기업, 정부, 국제기구, 학계, 학회 등 에너지 분야의 리더 및 관련자 5000여명이 참석해 1주일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.

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대구가 개최하며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정책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세계에너지협의회(World Energy Council) 런던본부 의장이자 프랑스 국영 전력공사(EDF)의 명예회장인 피에르 가도넥스(Pierre Gadonneix)와 세계에너지협의회 런던본부 사무총장인 크리스토프 프라이(Christoph Frei) 등이 참여한다.

또 세계 에너지 메이저들의 최신기술 홍보 및 정보교류를 위한 전시회와 국제기구와 유관기관이 진행하는 이벤트도 동반될 예정이다.

조환익 조직위원장은 “대구 에너지총회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3/08/23>